

經濟構造變化와 下請生産體制

朴 垞 卿

本稿에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合理的 生産分業體制를 論議하기 위한 參考資料로서 後進的 狀況에서 출발하여 效率的 分業體制를 형성하게 된 日本下請制의 展開過程과 下請論의 主要論點을 概括的으로 整理하였다. 下請制의 展開過程에는 日本에 特殊한 經濟的·社會的·文化的 要因들이 작용하였지만, 産業技術發展과 市場規模擴大에 의한 分業의 擴大·深化, 分業體制의 再編過程에 一貫된 經濟的 合理性和 競爭原理의 貫徹, 分業集團全體로서 高生産性和 環境適應성을 실현하는 企業間 連結組織의 特性 등은 日本의 條件과 무관한 經濟論理로 설명될 수 있다.

I. 序

工業化過程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下都給分業은 産業技術發展과 市場規模擴大에 의하여 擴大·深化된다. 加工組立型 産業의 國際競爭力을 支持하는 日本의 下請制에서도 下請組織의 機能的 編成과 企業間 協力關係의 形成이 工業化初期에 실현된 것은 아니다. 日本의 下請生産體制는 戰時統制經濟下에서 軍需財閥의 生産體系에 中小機械工業을 編入시키기 위한 系列化에 의하여 階層的 構造가

형성된 후 量産型 機械工業의 國際競爭力이 培養된 高度成長期에 機能的 編成이 進진되었고, 低成長基調下의 知識集約化過程에서 外注下請管理의 合理화와 外注下請企業의 再編成을 통하여 分業集團全體로서 高生産性和 環境適應성을 실현하는 企業間組織으로 進化하였다.

이러한 下請制의 展開過程에서 下請企業간에 技術力·經營力의 隔差가 확대되면서 階層分화가 進行되고 多數의 下請企業이 淘汰되었으나, 環境變化에 適應하려는 下請企業의 自主的 努力과 新舊企業의 交替를 통하여 下請企業 全般의 技術力·經營力이 향상되고 下請組織도 柔軟한 環境適應力을 발휘하는 連結組織으로 進化하고 있다. 下請組織을 포함한 生産分業體制도 企業集團 중심의 統制

型 垂直的 連結組織에서 參加型 水平的 連結組織이 結合된 複合的 連結組織으로 進化하면서 專門性·競爭性·協力性的 調和를 통하여 高生産성과 環境適應性을 발휘하고 있다. 支配·取奪의 問題를 제기하던 下請制가 效率的인 社會的分業體制로 轉化하는 과정에 一貫된 特徵은 經濟的 合理성과 競爭原理가 貫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下請制의 變化和 더불어 下請論의 視角과 論點도 多元化되었다. 戰時中の 下請論爭과 戰後의 系列化論爭을 一貫한 下請企業의 技術的 後進성과 下請關係의 支配·取奪性에 관한 論議는 高度成長期를 지나면서 後退하고 下請組織을 포함하는 企業間 組織全體로서 效率性을 발휘하는 要因을 解明하려는 多様な 論點이 제시되었다.

本稿에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合理的 生産分業體制를 論議하기 위한 參考資料로서 後進的 狀況에서 출발하여 效率的 分業體制를 형성하게 된 日本下請制의 展開過程과 下請論의 主要論點을 概括的으로 整理하였다. 下請制의 展開過程에는 日本에 特殊한 經濟的·社會的·文化的 要因들이 작용하였지만, 産業技術發展과 市場規模擴大에 의한 分業의 擴大·深化, 分業體制的 再編過程에 一貫된 經濟的 合理성과 競爭原理의 貫徹, 分業集團全體로서 高生産성과 環境適應性을 실현하는 企業間 連結組織의 特性 등은 日本的 條件과 무관한 經濟論理로 설명될 수 있다.

II. 高度成長期の 下請系列化

下請工業은 滿洲事變(1931년) 이후에 中小機械工業이 軍需工業의 生産力增強에 動員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中小下請工業의 前近代性이 近代的 機械工業, 특히 互換性部品の 分業生産을 통하여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는 量産型 機械工業의 성장을 제약하였다. 당시의 下請工業에는 品質·精度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 量産型 機器의 部品을 製造·加工할 수 있는 生産設備, 技術力 및 經營管理力이 결여되어, 大工場에서 多種少量의 部品까지 內製하는 一貫生産方式을 취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生産費用面에서 國際競爭力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軍需工業의 大規模 増産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30년대 중반에 工業組合의 組織을 통하여 中小下請工業을 육성하게 되었다. 下請關係 工業組合이 조직되어 軍工廠과 大工場의 發注가 地方廳에 의하여 적합한 工業組合에 配定되고, 工業組合이 受注한 作業을 工程別로 分割하여 組合員에 配分하였다. 組合員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技術力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工業組合은 工程을 細分하여 個別 組合員의 作業內容을 單純化하고 組合의 檢査機能을 강화하였다¹⁾.

그러나 地方廳을 經由하여 工業組合이 受注하는 下請管理로는 急増하는 軍需工業의 發注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많았다. 地方廳의 統制로는 복잡해지는 下請去來의 管理에

1) 通商産業省(1963) 참조.

한계가 있었다. 특히 技術指導가 불충분하여 作業內容이 다양하고 특수한 加工技術이 요구되는 大工場의 發注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大工場과 下請工場간의 直接去來가 필요하였다. 당시의 浮動的 下請去來로는 下請企業의 指導·育成이 어려웠기 때문에 長期去來를 통하여 有機的 協力關係를 구축하기 위한 專屬下請化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1940년에 協力工場管理가 도입되었고 1944년에는 軍需財閥의 大工場을 頂點으로 하여 專屬協力工場(母企業 依存度 80%이상), 共同協力工場(母企業 依存度 30~80%) 및 一般集團利用工場으로 구성되는 階層的 下請生産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系列化가 추진되고, 戰時型 標準工作機械의 製造에서 集團體制의 效率性を 추구하는 系列管理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日本經濟에는 量產型 機械工業의 自生的 成長이 가능한 諸條件이 具備되지 않아서 下請工業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軍需工業이 전개되기 이전에 日本의 機械工業은 內需에 기반을 둔 多種少量의 産業機械를 注文生産하는 段階에 있었으며, 技術의 後進성과 市場規模의 制約으로 國際競争力の 培養이 어려웠던 量產型 機械工業에서는 完製品의 輸入과 外資企業의 國內生産에 의존하여 技術蓄積도 不振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軍需工業이 전개되었으므로 戰時中에 學習效果에 의하여 技術·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었어도 先發工業國과 경쟁이 가능한 技術水準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²⁾.

戰時中에도 精密機械技術의 부족으로 高級工作機械는 輸入에 의존하였으며 國產化된 軍用車輛도 品質·性能이 先發工業國의 수준에 현저히 未達하였고 生産性的 차이가 현격하여 價格競争力도 없었다.

戰前의 工業化를 뒷받침한 加工貿易은 低賃金の 過剩勞動人口에 기반을 둔 輕工業(주로 綿工業)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이러한 加工貿易이 經濟循環에서 遊離되어 軍需에 의존하던 重工業部門에 필요한 原材料·生産設備의 輸入財源을 조달하였다. 過剩勞動人口의 低賃金에 의존하여 殘存하던 前期中의 中小企業이 問屋制下請을 통하여 加工貿易에 動員되었다. 1920년대 후반의 金融恐慌으로 問屋과 地方中小銀行이 몰락하여 金融基盤을 상실하게 된 中小企業을 都市銀行의 融資集中을 통하여 主要産業에서 支配機構를 확립한 大企業群이 問屋制下請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용하였다³⁾. 戰前의 工業構造高度化는 輕工業段階의 工業構造를 重工業型 工業構造로 편성하려는 政治的·經濟的 強制에 의하여 皮相的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基底部門의 前期中의 要因이 工業化過程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蓄積資本의 不足, 技術的 後進性, 狹소한 國內市場, 低賃金の 過剩勞動力 등 後進的 諸條件에 의하여 工業發展이 제약되었고,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관계에서도 前期中의 取奪이라는 逆行的 性格이 固着되었다.

1930년대초 이후 世界經濟와 隔離되어 技術的 後進性이 固着되었던 日本經濟는

2) 尾高煌之助(1983) 참조.

3) 問屋은 江戸時代(1600~1868)에 商品別·產地別로 特化한 仲介商人들로서 連携하여 獨占의 商權을 행사하면서 流通過程과 家內工業의 生産段階를 支配하였다. 明治維新 이후 近代의 都賣商이 출현하고 問屋은 부분적으로 殘存하게 되었다. 小宮山(1941)은 中小工業의 存立形態別 分類에서 百貨店, 貿易商社, 都賣商 등 商業資本의 支配下에 纖維, 衣類, 雜貨 등을 생산하는 中小下請工業을 問屋制下請으로 指稱하였다.

1950년대 전반부터 獨寡占 大資本의 競爭的 技術導入에 의하여 급격하고 광범위한 技術革新을 실현하였다. 戰後 日本經濟는 落後된 生産技術과 陳腐化된 生産設備로 인하여 經濟自立의 關鍵인 輸出伸張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難關을 극복하기 위하여 生産設備의 近代化와 先進技術의 導入에 의한 國際競爭力의 強化를 목적으로 企業合理化促進法(1952년)이 제정되었다. 合理化政策의 保護·支援下에 大量生産技術이 도입되고 設備投資의 伸張이 가속되면서 既存産業이 近代化되고 新産業(石油化學工業, 家電工業, 合纖工業)이 勃興하여 1950년대 중반 이후 重工業構造의 高度化가 급속히 進行되었다. 大規模設備投資를 뒷받침한 融資集中機構에 의하여 企業集團이 형성되고 大企業體制가 재건되었다⁴⁾.

戰時經濟下에서 부분적으로 展開되었던 系列化는 1950년대 전반에 産業全般에서 再開되어 工業生産이 급격하게 신장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확대되었다. 寡占의 大資本간의 市場占有競爭이 加熱되면서 生産力增強을 위한 外注下請의 이용이 확대되었다. 外注下請의 排他的 利用을 위하여 종래의 浮動的 下請工場이 아니라 連繫가 강화된 協力工場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高成長部門의 大資本은 鉅액의 設備投資와 병행하여 下請系列集團을 編成하였다. 舊財閥系 集團과 結合關係가 약한 家電, 自動車, 鐵鋼部門의 大資本이 보다 적극적으로 下請系列集團을 확대·강화하였다. 舊財閥系 企業集團의 同系企業間 相互依存關係에 대항

하기 위하여 關聯部門의 系列支配에 의한 企業集團化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關係會社와 下請系列의 擴張은 資本蓄積이 충분하지 않았던 大資本이 生産力을 增強하는 유효한 수단이었다.

外注下請이 급격히 증대하면서 下請企業의 生産力不足, 納期遲延 및 不良增加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管理技法이 도입되고 施行錯誤가 반복되었다. 下請企業도 母企業의 요청에 따라 生産力의 量的·質的 擴充, 經營管理의 近代化, 單價引下 등에 노력하였다. 母企業은 우수한 下請工場을 선별하여 系列에 編入시키고 技術指導·設備貸與·融資斡旋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였다. 취약한 下請工場은 再下請工場으로 정리되고 再下請工場의 管理가 부분적으로 系列下請工場에 위임되었다. 系列下請工場이 專門業體로 육성되어 系列外部로 販路를 확대하고 技術·經營力이 향상되어 母企業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貿易外換自由화가 進行된 1960년대 전반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母企業의 量産體制가 확립되면서 下請體制의 前近代性이 障隘要因이 되어 母企業의 量産體制에 적합하게 下請系列集團이 再編成되었다. 1963년의 불황을 계기로, 下請系列集團의 量的擴大도 둔화되었다. 自動車工業에서는 工程別 分散發注에서 集中發注와 一括發注(unit發注)로 發注方式을 전환하면서 下請企業을 整理하고 系列集團의 質的強化策으로 系列企業의 提携·合併을 추진하였다. 電氣電子工業에서도 量的으로 팽창해온 系列集團을 再編成하여 系列集團의 利點을 강화하는 것이 經營管理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 電氣電子工業의

4) 衣本篁彦(1987) 참조.

大企業은 資本의 重點移動, 經營의 多角化 및 脆弱部門의 整理·統合을 추진하면서 下請系列集團을 再編成하고 系列企業을 축소하였다. 이와 같이 量產體制가 확립되는 過程에서 獨占資本의 系列에 編入되어 성장한 中小企業·中堅企業의 階層分化和 企業系列의 少數精銳化가 진행되었다.

經濟規模가 확대되면서 專門業體도 광범위하게 출현하였다. 電子業種의 部品業體가 中堅企業으로 성장하고 機械加工의 下請企業이 專門加工業體로 성장하였다. 專門業體의 육성은 母企業의 發注方式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系列下請企業에 대한 集中發注와 完成品發注로 전환하여 勞動力不足을 해결하고 外注에 의한 生産擴大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系列下請企業이 獨立專門業體로 육성되면서 購買·外注의 競爭的管理(外注管理에서 競爭原理을 활용)와 部品の 安定供給을 위한 複數發注가 확대되었다. 部品業體도 母企業의 複數化에 의하여 量產體制의 確立·專門技術의 蓄積·研究開發投資가 가능하게 되었다.

外注管理의 合理化의 수단으로 定時定量納入制와 價値分析(value analysis)이 導入되었다. 系列企業에 品質管理와 價値分析의 思考가 침투되고 設備能力과 研究開發機能이 강화되었다. 系列企業은 專屬的 下請企業(협력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生産管理의 도입과 철저한 原價管理를 강제하고 하청기업의 合併·提携와 選別·整理를 추진하였다. 下請價格의 결정에서도 母企業의 原價計算技法이 고도화되어 단순한 事後的 原價計算을 지양하고 「標準原價」主義를 지향하여 하청기업의 原價意識을 향상시키고 計劃的·定期的으로

單價引下를 강제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下請去來關係가 系列集團內部的 閉鎖的 關係에서 集團外部로 去來先을 多邊化하는 開放的 關係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賃金隔差를 이용하는 종래의 下請管理은 晝夜적 親子關係(支配·從屬關係)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나 1960년대 전반부터 勞動力不足이 심화되고 賃金隔差가 축소되어 下請管理의 合理化가 불가피하였고 貿易黑字의 定着으로 經濟의 國際化가 가속되면서 國際競爭에 대비하는 大型合併 중심의 産業再編成이 진행되어 外注下請體制의 再整備가 요구되었다. 下請企業을 포함하는 企業集團 전체로서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合理的 生産分業體制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外注下請管理의 合理化가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效率的인 分業生産體制를 확립하는 企業集團이 內外市場에서 優位를 점하게 되므로 外注企業을 獨立型專門業體나 專屬型專門業體로 육성하여 發注企業과 外注企業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이윤을 확보하는 合理的 生産分業體制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外注利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計劃的 內外製政策이 수립되고 計劃的 內外製政策下에 重點外注制度에 의한 下請再編成이 진행되었다. 重點外注制度는 外注·下請企業 중에서 生産能力·技術力·經營力·人材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中核的 協力工場으로서 有望한 重點工場을 선정하고 母企業의 生産過程에 編入시켜 集中發注하며 脆弱한 下請企業을 中核的 重點工場下에 再下請(2次, 3次)으로 編成하여 重層的 下請構造를 정책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重點外注制度가 새로운 再編成方法은 아니

지만, 重點工場은 位置·役割·生産規模 등에서 종래의 系列工場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重點外注制度에 의한 體制整備와 함께 外注管理體制의 近代化가 추진되었다. 重點外注의 擴大를 통하여 生産過程의 外延的 擴大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分工場化된 重點外注工場의 管理를 포함하는 生産管理體制 全般의 近代化가 추진되었다. 外注管理專門職制가 정비되고, 設計·生産管理 및 外注管理의 機能的 統合과 外注管理의 電算化가 진전되었다. 價値分析에 의하여 外注下請工場의 作業·工程을 검토하고 設計·仕様을 수정하여 部品點數를 削減하고 組立을 簡素化하였다. 價値分析專門職을 도입하고, 關係技術陣과 外注工場의 職員을 動員하여 協力體制를 구축하였다. 母企業에서 看板方式에 의한 在庫管理·工程管理가 철저히 실시되면서 直轄制가 확대되고 納期遲延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外注管理에서 品質管理·價値分析·無缺點運動이 강화되고 無檢査納入이 확대되면서 母企業과 重點工場간에 生産의 同期化가 진전되었다.

企業集團의 階層的 經營構造를 보면, 關係會社의 管理에서는 長期經營計劃의 일환으로 社會的分業에 의한 協業體制를 구축한다는 開放的 立場에서 協力·調整하여 經營全體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系列企業의 관리에서는 生産·技術의 系列化·合理化를 강화하면서 品種別 量産化·高級化·機能部品の unit 생산·技術開發機能(商品企劃力, 販賣促進能力, 轉換機能 등을 포함)의 강화를 위한 集團化

와 提携·合併이 추진되었다. 費用節減을 위하여 量産化를 시도하는 系列企業에서 母企業의 複數化에 의하여 開放的 要素가 증대하였고 모기업은 資本的 支配·管理와 技術開發機能의 利用을 강화하였다. 專屬的下請(系列·協力工場)의 管理에서는 종래의 勞動集約的 工程에서 高加工度 機能部品の 生産으로 전환시키고 規格化·標準化를 촉진시키기 위한 經營指導·情報提供·技術指導의 協力工場管理(外注管理)를 강화하였다. 協力工場管理는 品質, 納期, 價格, 財務, 勞務, 生産能力(技術·設備), 經營, 協力度, 採算性 등을 포괄하는 綜合的인 管理로 발전하였다⁵⁾. 中小企業白書(1969)에 의하면 自動車産業에는 14개의 母企業下에 350개의 部品業體(子會社, 系列會社)와 專屬下請企業을 포함한 8,000개의 1次, 2次, 3次 下請企業과 浮動的 下請企業이 중속되어 있는 多層的 生産構造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階層的 經營構造에서 獨寡占 大企業이 關係會社와 系列會社를 관리하고 系列會社가 專屬的 下請企業을 관리하며 專屬的 下請企業이 浮動的 下請·再下請企業을 支配管理하는 階層的 管理機構를 통하여 獨占利潤의 實現에 따른 負擔이 下請과 再下請으로 轉嫁되었다. 低賃金 取奪의 下請管理가 뿌리박고 있는 底層의 浮動的 下請企業과 再下請企業은 여전히 相對的 低賃金·劣惡勞動條件 長時間勞動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經營狀態에 있어 家內勞動·季節勞動·內職·臨時工·時間制勞動 등과 결부되었다. 階層的 經營構造는 母企業을 중심으로 集中·支配를 強化하며 企業集團의 再編成을 통하여 負擔轉嫁·取奪機構로서의 機能을 보다 強化한다는 비

5) 加藤誠一·水野武·小林靖雄(1976) 참조.

판이 제기되었다⁶⁾.

1960년대 후반에 零細下請企業의 數가 현저히 증가하여 3次 이하의 再下請으로 編成되었다. 戰前부터 生業的 自己雇傭의 開業이 中小企業을 再生産하는 機構로 존재하였으며 高度成長期에 開業機會가 확대되면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에서 技術·技能을 연마한 從業員에 의하여 生業的 自己雇傭이 아닌 經濟的地位의 향상을 위한 開業이 확대되었다. 勞動力의 不足과 賃金隔差의 縮小에 대응하여 中堅企業과 中規模企業도 정책적으로 中堅을 독립시켜 協力下請工場을 확보하고 分散의 生産方式을 취하여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와 생산확대를 실현하였다.

獨占資本간의 關係에는 協助와 競争의 兩面性이 있어 「非獨占企業의 體系的·制度的利用」에서 協助性이 나타난다. 母企業의 複數化는 量産效果와 受注競争을 통하여 合理化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多重的 去來關係가 系列企業과 專屬下請企業에서는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나 底層의 再下請에서는 閉鎖的 去來關係가 지속되어 母企業에 대한 從屬性이 강하였다. 從屬性이 강한 再下請에서는 經營의 不安定性·母企業의 強制(再下請의 合理化에 소극적인 行態)·再下請간의 過當競争으로 近代化가 부진하였다. 1970년에 下請中小企業의 體質強化와 下請關係의 近代化를 목적으로 「下請中小企業振興法」이 제정되어 再下請에도 정책이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下請中小企業의 近代化와 專門化에 의한 自主獨立化(脫下請)도 정상적인 社會的分業

의 發展과 관련하여 問題性을 內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母企業의 複數化→獨立專門業體化→정상적 社會的分業으로의 發展可能性이 문제가 되었다. 母企業의 複數化가 이루어진 中堅企業도 資本·人的關係를 통하여 特定 母企業의 支配下에서 研究開發力(商品企劃力)이 利用·取奪될 가능성이 있다. 下請價格의 決定에서도 目標原價에 의한 費用管理에 의하여 工程別 單價決定이 적용되는 범위가 축소되고 母企業의 目標原價와 下請企業의 價格見積에 의한 價格決定이 확대되면서 下請企業의 能率과 費用에 따라 個別的으로 下請單價를 결정하게 되어 하청기업이 結束하여 價格引上을 교섭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價格決定面에서 外注·下請企業의 分離支配가 강화된 것이다.

Ⅲ. 低成長期の 外注下請

高度成長期에 下請企業이 母企業에 系列化되어 專屬化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下請企業의 立場에서도 經營安定(受注保全), 技術·經營指導, 母企業과 함께 成長할 수 있는 將來性 등 利點이 있었기 때문이다. 母企業간의 競争이 치열하여 系列·下請企業을 指導·育成하면서 合理化를 요청하였고 下請再編成이 波狀的으로 進行되었다. 好況期에 下請利用이 확대되고 不況期에 限界下請企業이 정리되었다. 優良下請企業은 母企業의 엄격한 요청(原價節減, 品質向上, 納期管理)에 대응하기 위하여 精度向上·加工度向上(unit化)·技術開發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專門性이 심

6) 加藤誠一·水野武·小林靖雄(1976) 참조.

화되었다. 下請中小企業이 專門技術을 축적하고 開發力(技術·製品)을 배양하여 母企業과의 結合關係가 약화되면서 社會的分業이 深化되었다.

多重的 去來關係의 확대에 의한 社會的分業의 深化는 低成長基調로 이행하면서 가속되었다. 不況期의 一時的 下請整理가 아닌 構造的 下請整理가 전개되었다. 發注比率과 發注先의 변경에 의하여 限界下請企業을 정리하고 有力下請企業과 協力關係를 強化하여, 價値分析·研究開發의 協동추진을 확대하고 生産의 同期化를 철저히 추진하였다. 「最惡의 狀態에서도 採算性있는 生産體制」를 구축한다는 基本方針下에 外注加工費도 綜合的原價管理의 관점에서 엄격히 관리하였다. 下請價格이 協議에 의하여 결정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現實的·潛在的 競争과 下請再編成에 직면하여 下請企業이 스스로 저렴한 가격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어 철저한 合理化에 의한 原價節減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악의 狀態에서도 불가결한 下請企業群(重點外注工場과 特殊技術을 지닌 專門下請業體)에 적용되는 温情主義도 실제로는 合理化의 강제를 수반하였다. 主要部品の 安定供給을 위하여 外注下請企業의 經營에 개입하고 合理化를 구체적으로 指示·監督하였다. 協力下請工場의 生産現場 再點檢·中間在庫의 壓縮에 의한 費用節減·母企業과 下請工場의 生産管理統合이 실시되고 간판방식에 의한 納入이 확산되었다. 母企業이 요청하는 費用節減·納期短縮·精度確保·品質管理를 실현하기 위하여 自動化機械(數値制御工作機械, machining center)를 도입하는 外注下請企業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外注·下請管理에서 内外製와 外注先의 변경에 의하여 競争壓力을 활용하였다. 外注品目의 一部를 內製하면서 생산비를 비교하고 內製가 有利해지면 外注에서 內製로 전환하였다. 複數發注와 外注先別 發注量의 변경에 의하여 外注企業간의 경쟁이 강화되었고 外注企業의 선정에서 탈락된 多數의 下請企業도 潛在的 競争者로 대기하였다. 個別的 協議를 통하여 外注企業이 生産費를 回收하는 수준에서 購入價格을 決定(購入價格의 差別化)하고, 最低購入價格을 上廻하는 生産費에서도 一部를 內製하면서 合理化와 價格引下를 요청하고 外注下請을 再編成하였다.

構造的 長期不況이 外注下請體制의 近代化를 가속시켰다. 不況을 이유로 合理化와 價格引下の 요청이 강화되었다. 10~20%의 가격인하를 通告하고 受容하지 않는 外注下請企業과 거래를 중단하였다. 重點協力工場에 대하여 減量經營(規模縮小·人員削減)을 권유하였다. 不確實性的 增大로 發注量의 보장이 어렵게 되어 重點協力工場의 經營體質을 강화시키고 發注先의 多邊化를 권장하였다. 高度成長期의 下請再編成에는 生産分業體制全體로서 規模의 經濟性이 追求되었으나 構造的 長期不況下에서 下請體制를 철저히 減量하여 規模의 非經濟性을 배제하기 위한 下請再編成이 進行되었다. 外注下請體制의 減量은 中堅·中小企業의 母企業 依存도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中堅·中小企業도 적극적으로 受注先을 개척하고 技術開發力을 배양하여 독자적인 經營戰略을 전개하는 동시에 母企業의 旗本軍團으로서 共同運命體의 性格을 강화하였다. 高機能 機械設備를 도입하고 工程自動化를

도모하며 技術力의 培養에 노력하여 專門加工企業으로 성장하는 下請企業이 증가하였다. 下請企業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價格引下·品質向上·性能提高의 요청이 엄격하여 독자적 技術開發이 생존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主要製品의 自體設計·自體製作에 의한 工程合理化·自社の 特許權使用·主要設備의 自體開發·新技術의 自體開發·金型の 自體製作에 노력하는 下請企業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下請企業에 있어서도 獨立型 中小企業과 같이 經營基盤(技術力, 人材, 市場力, 財務力)의 확충이 중요하게 되었다. 母企業이 항상 內製화와 下請再編成에 의한 합리화에 노력하므로 母企業의 技術的 要求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技術력과 새로운 發注先을 개척하는 受注交渉力の 강화에 노력하였다.

2次 石油波動을 계기로 外注下請關係의 변화가 가속되었다. 石油波動에 수반된 급격한 價格體系의 變化和 價格引下の 強制에 대응하여 外注下請企業은 技術革新과 經營體質改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構造不況이 下請中小企業에 生存하기 위한 엄격한 自己革新을 요청하였다 할 수 있다. 生存을 위한 自己革新을 통하여 經營자의 능력(先見性·思考의 柔軟性·獨自의인 經營哲學, 명확한 經營方針), 간판방식의 生産·納入管理를 소화할 수 있는 管理能力, 新技術을 이용하여 製品을 改良하고 專用機를 開發하며 工程自動化를 추진할 수 있는 技術力, 市場動向을 把握하고 市場요구를 분석하며 新市場을 개척하는 마케팅力 등이 강화되었다. 축적된 專門技術을 綜合하여 자체적으로 新製品을 개발하거나 自體開發의 專用機·工程을 상품화하고 독자적 製品의 賣出比重을 확대하여

종래의 下請形態에서 탈피하는 中小企業이 증가하였다. 技術力·經營力の 隔差가 전제된 종래의 下請形態를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經營戰略을 선택할 수 있는 下請型 中小企業이 출현하였다. 母企業(主要去來先)依存度を 일정한 범위내에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獨自의 市場을 개척하거나 高度의 專門技術을 기반으로 專門製造業體나 專門加工業體로 獨立하며 여러 산업에 걸쳐 受注先을 개척하고 다양한 注文을 소화하여 독자적 經營戰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中小下請企業의 工程自動化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自動化機械의 사용이 原價計算의 標準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少數의 下請企業이 自動化機械를 도입하였으나 2次 石油波動 이후 自動化機械의 使用이 보편화되었다. 工作機械의 NC化率은 1980년대 전반에 현저히 제고되어 下請中小企業은 自動化機械를 구사하여 多品種少量生産을 영위하게 되었다. 體質強化의 핵심적 수단으로 中小企業의 工程革新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中小企業이 工程革新에 성공하려면 經營者の 적극적인 태도와 技術的 判斷能力·專門人력과 專門組織 技術情報를 획득하는 情報 network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條件이 구비되지 않으면 投下資本이 증대하고 所要期間이 長期化되어 危險負擔이 증대한다. 中小企業이 工程革新의 추진에 동원할 수 있는 經營資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려면 經營者の 決斷력과 實行力·外部專門人力の 活用·政府政策의 活用이 필요하다.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의 情報傳達方法도 변화를 보여 指導書·明細書·去來記錄이 電算化되고 팩시밀리가 情報傳達手段으로 이용되

고 있다. 일부 大企業의 LAN에 유력한 協力工場이 편입되어 情報傳達이 即時化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한 情報傳達은 주로 受發注管理 및 納期納入管理과 관련이 있어 下請企業의 受注業務가 合理化되고, 經營體質의 강화로 연결된다. 電算化에 의하여 管理機能이 高度化되고 受注競爭力이 강화되며 모기업도 on-line network 化된 下請企業을 우대한다.

研究開發型 新企業이 群生하여 大企業이나 研究所가 注文하는 특수한 部品·機器·소프트웨어의 開發을 소화한다. 製造設備를 보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開發·設計한 機器·部品の 製造를 外部에 위탁한다. 製造·加工業體를 조직하여 製造工程을 완비하고 内部에서 完成品을 검사하여 自社製品으로 출하한다. 近年에는 下請企業간에도 異業種 連携에 의한 情報交換·共同開發·共同受注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종래의 完成品下請·包括下請이라 할 수 있는 OEM 生産도 성행하고 있다. 종래의 包括下請과 달리 發注者가 設計圖와 明細書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기술을 종합하여 完成品을 제작하는 능력을 지닌 企業이 販賣戰略의 一環으로 OEM 生産을 受注한다.

低成長基調下的 技術·知識集約化 過程에서 下請企業간에 技術力·經營力の 隔差가 확대되고 多數의 下請企業이 脱落·淘汰하였다. 그러나 下請企業群 全體로서 專門技術·經營力を 보유하고 連結組織을 통하여 柔軟한 環境適應力を 발휘하는 受注型 製造·加工集團으로 轉化하였다. 이러한 受注型 企業群을 포함하는 企業間 組織(生産分業體制)도 企業集團 중심의 統制型 垂直的 連結組織과

參加型 水平的 連結組織이 結合된 複合的 連結組織으로 轉化되면서 專門性·競争性·協力關係의 調和에 의한 機能的 統合을 指向하여 體制全體로서 高生産성과 環境適應性を 발휘하고 있다. 支配·收奪의 문제를 제기하던 下請制에서 效率성과 柔軟성이 높은 社會的分業體制로 上昇轉化하고 있다. 一貫된 特徵은 競争原理의 貫徹이며, 市場機構에 의한 社會的分業의 擴大였다. 그러나 下請問題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競争原理를 惡用하는 價格引下的 強制·優越的 地位의 濫用·經營統制(支配從屬性의 殘影)의 逆機能을 부정하기 어렵다. 體制의 效率성과 不公正去來의 問題性이 併存하여 專門加工型 中小企業에도 母企業과 對等한 거래를 한다는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IV. 下請制의 問題性

下請制의 變化와 더불어 下請論의 論點도 多元化되었다. 戰時中の 下請論爭에서 高度成長期의 系列化論爭에 이르는 下請制의 問題性에 관한 論議는 高度成長期를 지나면서 褪色되고 下請分業體制의 效率성에 관한 다양한 論點이 제기되었다.

小宮山과 藤田간의 下請論爭에서 下請中小工業의 問題性에 대한 事實認識은 차이가 없었으나 戰時中에 추진된 專屬下請化의 評價가 爭點이 되었다. 問題性的인 認識에서는 生産力의 문제인 「二重隔絶性」과 生産關係의 문제인 支配·收奪性を 一體의으로 파악하는 共同된 立場을 보였으나, 專屬下請의 評價에

서는 小宮山은 大工業과 中小工業의 有機的結合을 통하여 「二重隔絶性」이 해소되고 對等한 去來關係가 형성될 수 있는 契機로 보았으나 藤田은 技術指導가 강화되어도 外業部的 支配에서 脱皮하지 않으면 「二重隔絶性」이 해소될 수 없다고 보았다⁷⁾.

藤田(1943)은 下請制의 本質을 商業資本의 支配로 파악하였다. 商業資本의 支配라 함은 産業資本이 生産활동에 자본을 투하하지 않고 流通面에서만 機能하는 商業資本과 같이 産業資本의 危險과 責任을 回避하면서 産業資本 이상의 利潤을 얻는다는 것이다. 藤田은 下請制의 本質規定에서 資本간의 關係가 아니라 資本과 勞動간의 關係에 주목하였다. 藤田에 의하면 産業資本은 自己經營下에 勞動을 結集시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동시에 經營外部에 분산되어 있는 勞動을 外業部에 繫留시켜 間接적으로 지배하여 外業部인 中小資本의 獨立性은 전혀 虛構的이며 勞動과 支配資本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下請關係에 있어 支配資本이 從屬資本과 生産關係를 갖는다는 것을 藤田도 인정한다. 藤田은 外注를 購買와 下請으로 구분하고 購買는 주로 社會的分業의 觀點에서 채택하는 外注이며 下請은 生産力의 一時的 補充·費用節減·資本의 과대한 固定化抑制·勞動對策의 觀點에서 채택하는 外注로 규정하여 下請을 社會的分業에 기반을 두지 않는 外注로 설명하였다.

小宮山(1941)은 中小企業의 存立形態를 獨立形態와 從屬形態로 分類하고 從屬形態를 商業資本이 지배하는 問屋制工業과 産業資本

이 지배하는 下請工業으로 再分類하였다. 下請에 대한 理解에 있어서 藤田과 小宮山の 차이는 問屋制工業과 下請工業의 區分에 대한 是非에서 나타난다. 小宮山에서 支配資本이 商業資本인, 下請과 支配資本이 産業資本인 下請과는 支配從屬關係의 內容이 다르다. 小宮山도 産業資本이 商業資本의 所以로 機能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浮動的 下請의 性格은 産業資本의 이기보다 商業資本의 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專屬的 下請에서는 大工業과 中小工業간의 關係가 社會的分業에 기반을 둔 相互依存關係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小宮山은 生産力發展의 桎梏이 되는 産業資本의 商業資本의 支配가 해소되고, 産業資本으로 機能하는 大工業과 中小工業간의 關係가 형성되는 계기를 專屬的 下請에서 발견하였다. 小宮山은 浮動的 下請의 專屬化가 下請工場의 生産을 部分工程에 特化시켜 大工場의 基本的 生産과 有機的으로 結合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小宮山이 想定한 理想的 關係는 生産技術面에서 有機的 關係가 형성되어 等價交換이 貫徹되는 外注關係라고 이해할 수 있다. 下請制가 浮動的 關係에서 專屬的 關係로 轉化하는 과정에서도 優位資本이 劣位工業資本을 支配하는 下請制의 性格은 변하지 않지만 轉化過程에서 下請制 자체를 脱皮하여 社會的分業에 바탕을 둔 對等한 關係가 형성되는 萌芽를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下請制는 問屋制와 달리 從屬性에서 脱皮할 수 있는 契機를 內包한다고 본 것이다. 小宮山の 下請理論은 下請制를 中小工業의 從屬形態로 파악하면서도 靜態的이 아니라 動態的으로 이해하였다 할 수 있다.

7) 渡邊幸男(1985) 참조.

戰時中에 제기된 問題意識이 承繼되어 戰後에도 下請工業의 「二重隔絶性」과 下請關係의 「支配·収奪性」에 대한 問題意識을 共有하게 되었다. 이러한 公同의 問題意識下에 새로이 直面하게 된 現象이 高度成長期에 전개된 下請系列化이다. 1950년대 후반에 量產機器의 生産이 急増하면서 部品供給을 담당할 下請企業의 技術的 後進性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에 下請企業의 대부분은 여전히 「二重隔絶性」의 상태에 停滯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下請系列化가 전개되고 中小下請企業의 一部에서 技術水準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下請系列化의 評價와 관련된 系列論爭이 전개되었다. 藤田(1957)은 下請系列이 支配機構라는 점에서는 下請制와 차이가 없으나 技術的·經營的 合理性을 추구하는 有機的 結合이라는 점에서 下請制의 단순한 延長이 아닌 全面的 改裝이라고 주장하였다. 小林(1958)은 藤田의 系列評價를 비판하면서 問屋制下請에서 下請工業을 거쳐 企業系列에 이른 辨證法的 發展이 전개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小林에 의하면, 下請系列化는 本質的으로 下請制의 範疇에 속하는 現象이며 下請關係로서 系列化가 전개된 것은 獨占資本간의 경쟁이 優良下請企業의 組織的 利用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系列化現象에 의하여 戰時中의 下請論爭에서 제시된 下請論에 誤謬가 있음이 명백해졌다. 下請制 自體가 中小工業의 生産力發展에 桎梏이 된다고 주장한 藤田이나 專屬下請을 통하여 中小工業의 生産力發展과 對等한 去來關係가 실현된다고 전망한 小宮山이나 系列化에 의하여 中小下請工業의 技術的 停滯性은 해소되고 있으나 下請關係의 支配·収

奪性이 개선되지 않는 現實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生産力의 문제와 生産關係의 문제를 一體的으로 파악하는 小宮山과 藤田의 視角에서는 下請制의 理解에 한계가 있다는 問題意識이 대두되면서 下請制와 下請問題간의 關聯을 理論的으로 解明하려는 論點들이 제시되었다.

伊東(1961)은 下請制를 獨占資本主義의 構造的 矛盾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下請關係의 成立過程을 설명하였다. 伊東은 獨占資本主義體制下에서 中小企業은 小生産者가 아닌 工業資本家이지만 사실상 問屋制下의 家內工業과 유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資本蓄積의 諸條件이 제약되고 독자적 발전의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下請關係에 흡수된다고 보았다. 資本主義經濟가 獨占段階로 들어서면서 獨占的 巨大資本의 市場支配가 확립되어 原料의 購入市場, 製品의 販賣市場, 資本市場에서 차단된 中小企業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상실하고 大企業의 下請으로서 存續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下請制는 大企業간의 對等한 外注나 市場去來에 의한 部品調達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對等하지 않은 支配從屬關係를 특징으로 하여 經濟的 內容은 不等價交換이라고 보았다. 下請制를 不等價交換을 통하여 上位資本이 中小資本의 利潤을 収奪하는 機構로 본 것이다.

中村(1962)은 下請制의 本質을 「社會的 分業關係에 있는 諸階層간의 不等價交換의 關係」로 파악하고 下請制의 形態를 購買獨占의 大資本과 中小資本간의 「對等하지 않은 外注關係」로 규정하였다. 獨占資本에 의한 下請利用의 本質이 購買獨占이므로 問屋制支配의

기초인 前期的 獨點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발전된 資本主義에 있어서 購買獨點은 集積·集中에 기반을 둔 市場支配力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中村은 低賃金-中小企業의 過當競爭-獨占取奪의 關係에 기반을 둔 資本의 分裂·分散이 社會的分業의 增殖過程에서 資本集中을 停滯시키고 技術進步와 專門化를 阻害하며 獨寡占大企業에 대한 中小企業의 從屬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藤田은 下請을 社會的分業에 기초하지 않은 外注로 이해하였다. 小宮山도 이 점에 관해서는 藤田과 같으며, 社會的分業에 바탕을 둔 一般의인 外注關係를 下請制 解消의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下請制와 社會的分業을 대립적으로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伊東의 견해도 同一線上에 위치한다 할 수 있다. 「日本の 下請制」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社會的分業으로도 볼 수 있으나, 大企業이 中小企業에 部品の 製造·加工을 發注하는 근본적 이유는 外部經濟를 추구한다는 分業的 理由보다는 下請이 비용면에서 內製보다 유리하다는 下請工場의 低賃金を 利用하는 특수한 事情에 있다고 보았다. 大企業과 社會的分業關係를 형성하는 技術水準이 높은 專門工場은 中小規模라 해도 危險負擔의 轉嫁나 單價引下の 강제가 적은 去來關係를 유지하며 이러한 관계가 하청관계가 아닌 대등한 外注關係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下請制는 대등하지 않은 外注關係로 이해되어 社會的分業인 外注關係와 對峙되었다. 社會的分業인 外注關係는 藤田에서는 「購買로 불리는 外注」이며 伊東에서는 「技術水準이 높은 專門工場」과 「대등한 外注關係」이다. 下請制의 本質을 資本간의 支配

從屬關係로 이해한 것이다. 社會的分業이 아닌 外注關係는 支配從屬關係를 內藏한 外注關係가 되며 社會的分業인 外注關係는 支配從屬關係가 아닌 對等한 外注關係로 對峙되었다.

藤田은 隔差가 작은 大中小資本이 適性에 따라 社會的分業에 가까운 去來가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伊東도 「日本の 下請制」는 獨占資本主義의 商業資本의 寄生性を 特性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下請制가 그러한 특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對等한 分業關係가 형성되어 不等價交換이나 危險負擔의 轉嫁에 의한 取奪이라는 성격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下請制라는 概念도 소멸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下請制를 對等하지 않은 社會的分業關係로 규정하는 中村(1964)은 下請과 社會的分業을 對立시키는 입장을 비판하고 下請制의 發展과 擴大를 社會的分業의 발전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社會的分業을 특별히 企業간의 對等한 관계에만 국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下請制를 社會的分業으로 보는 입장에서 종래의 社會的分業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專門企業化를 下請制解消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下請制의 보급은 社會的分業이 발전한 결과이지만 下請制는 社會的分業의 지속적 발전을 阻止하는 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점에서 下請制의 보급을 生産의 專門化와 대립시켰다. 中村에 의하면 下請關係가 발생하는 根因은 母企業과 下請企業間的 拮抗力의 차이로서 中小企業이 大企業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는 것이 下請問題를 解消하는 唯一한 방법이며 量產體制

에 적합하게 독자적인 製品開發力·設計能力·販賣市場을 보유하는 專門製造業體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專門化企業을 大企業의 量産化에 따라 組立部品을 생산하거나 一般的 市場性을 지닌 部品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다.

量産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현한 專門企業은 대기업에 의하여 제약받지 않는 獨自的·一般的 市場을 확보하는 기업으로 나타났다. 專門企業은 市場條件에서 外注關係로부터 離脫하는 중요한 계기를 內包하고 있다. 中村이 제시하는 專門化를 통한 下請制解消는 社會的分業化에 의한 下請制解消와 현저히 다르다. 社會的分業化에 의한 下請制解消는 外注關係의 支配從屬性을 부정하지만 外注關係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中村은 하청기업이 專門企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過渡的 形態로 量産加工型 企業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中村에 의하면 下請企業은 단순한 加工業體에서 量産型 加工業體로 이행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專門企業으로 발전하며 中小企業系列化도 過渡的 形態의 量産加工型 企業으로서 적극적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量産加工型 企業이 系列中小企業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아직 外注關係의 非對等性을 內包하고 있다 할 수 있다.

中村은 下請企業과 專門企業간의 過渡的 形態인 量産加工型 企業에서 下請制解消의 「專門企業化過程」과 「社會的分業化過程」을 연결하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下請의 社會的分業化를 量産加工型企業으로의 移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성립한다면 下請制解消의 專門化過程은 社會的分業化過程을 초월하는 것으로 想定할 수 있

다. 결국 外注關係의 테두리 안에서 下請制解消過程의 진전을 인정하면서 下請制解消는 外注關係를 탈피하는 專門企業化로 파악한 것이다.

專門企業의 專門性을 大企業에 대한 對抗力(價格形成力, 市場占有率, 技術水準, 資本調達力 등의 제요소로 구성되는 經濟的 能力)으로 이해한 北澤(1975)은 大企業의 經濟的 能力과 對峙되어 의미를 지니는 相對的 能力인 對抗力이 장기에 걸쳐 保持될 수 있다면 專門企業이 下請制解決의 목표가 될 수 있으나 技術的·資本的 要因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견지될 수 없다면 專門企業은 下請企業의 一定段階까지의 成長可能性은 제시해도 下請制解消의 目標은 될 수 없다는 異見을 제시하였다. 北澤은 部分的으로 가능한 專門企業化를 下請關係全般의 變化過程으로 파악하거나 專門企業을 析出하는 下請關係의 苗床機能을 간과하는 誤謬도 지적하였다.

日本の 下請組織은 母企業의 內部組織과 類似한 結合要素를 지니는 準內部組織 또는 準垂直結合으로 설명된다. 下請組織에서 母企業의 指示가 受容되고 統制가 貫徹되는 것이 內部組織의 命令受容과 類似한 性格을 지닌다. 下請企業이 經營의 自主性을 保持하므로 內部組織에서와 같이 受容範圍가 광범위하지 않으며 下請企業의 經營資源이 축적되면서 受容範圍가 변한다는 점에서 安定的이지도 않다. 母企業과 下請企業의 관계는 潛在的 緊張關係에 있다 할 수 있다. 母企業은 보다 철저한 統制의 貫徹를 指向하며 下請企業은 技術力을 강화하여 自立·脫下請을 시도한다. 獨自的 技術力을 배경으로 母企業과 對等한 去來關係를 형성하는 下請企業의 증

가는 下請關係가 相對的 力關係에 따라 규정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港(1985)은 下請組織에서 母企業의 指示가 受容되는 根據를 母企業의 經營資源에 대한 依存으로 설명한다. 下請企業이 母企業의 경영자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母企業의 통제를 수용하는 범위를 규정한다고 이해한다. 下請組織의 展開過程에서 産業全般의 技術·知識集約化에 대응하여 經營資源을 충분히 축적할 수 없었던 下請企業은 母企業이 보유한 優位의 經營資源에 의존하여 성장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資本循環이 不完全한 下請企業은 母企業의 經營資源에 대한 依存이 불가피하다. 商社·問屋·百貨店으로부터 食品·衣類·雜貨의 製造를 受注하는 下請企業의 資本循環에서는 生産手段·原資材에 대한 資本投下와 價値實現이 商業資本에 의하여 補完된다. 下請企業의 産業資本이 生産過程을 주도하면서 商品企劃에서 販賣過程의 일부에 걸쳐 순환하고 있으나 市場競爭에 이르는 일관성이 없다. 自動車·家電·産業機械의 部品을 제조하는 1次下請企業은 機械設備·原材料·勞動力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면에서는 일반 産業資本과 같으나 價値實現은 기본적으로 母企業에 의하여 보완된다. 母企業에 의한 價値實現過程의 補完에 의하여 産業資本으로서의 循環이 完結된다. 複數의 母企業이 補完하는 경우도 같은 성격을 지닌다. 鑄造, 鍛造, 프레스가공, 열처리, 鍍金, 機械加工 등의 工程을 분담하는 再下請企業의 資本循環은 部品業體의 生産工程을 代行하는 특이한 循環이다. 不完全한 循環으로 相互依存이 불가피하여 集團을 형성하여 循環을 完決시키게 된다. 集團을 구성하는 個別企業의 特

化에 의하여 低費用을 실현하는 生産工程의 重層의 分割이 가능해진다.

下請企業에 공통된 要素를 보면, 同一商品의 生産·流通過程이 分割되어 企業間關係가 組織되고 資本循環 全般이 最終的 管理機能을 수행하는 産業資本에 의하여 根源적으로 指揮·監督된다. 機械設備의 貸與·指定, 原材料의 支給·貸與·指定, 作業方法의 指定 등으로 下請企業이 자신의 의지로 資本循環을 결정하는 經營管理의 自主성이 制約된다. 새로운 生産技術의 導入과 成果의 配分에서도 母企業이 指揮·監督한다. 下請企業의 生産合理化의 成果를 意識的·組織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品質管理와 價値分析을 指導하고 共同으로 推進한다. 母企業의 指揮·監督에 의하여 下請企業의 生産合理化는 촉진되지만 自立·脫下請에 이르는 經營資源의 蓄積은 沮害될 수 있다. 商品企劃이나 生産過程에 관한 管理機能의 向상이 부진하고 市場에서 販賣價格을 형성하는 機能이 退化되어 價値實現이 제약될 수 있다.

下請企業의 技術力이 向상되어도 負擔轉嫁가 해소되지 않은 것은 技術力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尖端·高度技術分野의 비중이 큰 母企業은 革新的 新技術·新設備를 보유하며 部品加工이나 成熟型製品의 生産을 담당하는 下請企業은 주로 標準화된 技術·設備를 사용한다. 尖端·高度技術分野에서는 研究開發費와 技術者·研究者가 투입되어 高附加價値가 실현되지만 標準的 技術分野에서는 주로 標準화된 技術·設備가 사용되는 低附加價値 活動이 큰 비중을 점한다. 加工組立型 産業에서는 尖端·高度技術과 標準的 技術이 일체가 되어 製品이 製作되므로 母企

業과 下請企業이 技術의 分業體制를 형성하게 된다. 技術力의 차이로 母企業이 內製로 전환할 가능성이 常存하고 技術이 標準化되어 新規進入이 용이한 下請生産分野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여 交渉力이 약한 下請企業은 購買獨占의 母企業이 강제하는 不等價交換을 회피할 수 없다. 長期間의 專業의 生産에 의하여 機械設備가 專門化되고 노하우와 熟練機能이 축적된 下請企業이 細分化된 技術分野에서 母企業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지만 母企業의 經營資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需要가 不安定하거나 少量이어서 費用과 品質에서 下請利用이 內製보다 유리하여 母企業이 內製化에 費用이나 人材를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細分化된 分野에서 下請企業의 技術力이 母企業보다 우수해도 斷片的인 技術로는 獨自의 市場을 開拓하여 自立하기 어렵기 때문에 母企業에 依存하게 된다. 近年에는 高度의 專門技術을 交渉力으로 하여 母企業과 對等한 去來關係를 形成하는 中小企業이 증가하고 있으며 下請企業의 技術蓄積이 장기적으로 下請關係를 변모시키는 중요한 要因이지만 現時點에서는 下請企業 全般의 技術力이 下請制의 特性을 變質시키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다⁸⁾.

下請企業을 再生産하는 社會構造도 下請企業의 交渉力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日本의 經營의 特性인 年功序列給은 사실상 大企業에서만 관찰되며 中小企業의 從業員은 40대 전반에 賃금이 下向하기 시작한다. 中小企業의 종업원에게는 습득한 技術·技能을 활용하여 독립하는 것이 經濟的 地位를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下請企業을 부단히 再生産하는 社會構造에 의하여 下請企業간의 競争이 유지되고 「市場原理과 組織原理의 相互浸透」가 실현되는 것이다.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의 賃金隔差도 技術力의 차이로 설명된다. 尖端·高度技術分野에서는 研究者와 技術者가 상당한 비중을 점하며 標準的 技術分野에서는 標準的 知識과 技能을 지닌 從業員으로 충분하고 標準的 知識이나 技能이 필요하지 않은 單純勞動者도 많다. 熟練勞動이 필요하지만 未熟練勞動分野도 있어서 熟練工과 未熟練工이 함께 作業을 진행시킨다. 母企業에서는 高度의 知識과 經驗을 요구하는 作業이 많아서 高學歷·長期勤續의 熟練技能이 큰 비중을 점하며 下請企業에는 熟練技能을 요하는 作業도 있으나 女子·低學歷者·中途採用者 등 低賃金階層의 單純作業이 적지 않아서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에 平均賃금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性·年齡·學歷·勤續年數를 감안하면 賃金隔差가 축소된다. 勞組組織率과 勞動需給狀況도 規模別 賃金隔差를 설명한다. 大企業의 勞組組織率이 높으며 勞動需給 狀況도 知識勞動의 超過需要와 未熟練勞動의 超過供給에 처하기 쉽다. 특히 勞動市場의 分斷性이 강하여 大企業의 勞動市場은 폐쇄적이며 大企業의 勞動市場에서 배제된 계층이 中小企業으로 流入된다. 標準的 技術分野에서도 일반적으로 賃金과 勞動條件에 隔差가 있을 때 下請이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標準的 技術分野의 作業은 일반적으로 標準的 知識과 設備를 사용하므로 人件費 이외의 製造費用이나 品質에서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에 큰 차이가 없다. 勞動時間의 伸縮性도 標準

8) 河崎亞州夫(1985) 참조.

的 技術分野를 下請企業으로 移轉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勞組가 조직되지 않은 下請企業에서 勞動時間의 伸縮性이 커서 自動化設備의 長時間稼動이 가능하다.

V. 企業間 組織의 效率性

高度成長期를 통하여 中小下請企業의 技術力이 적어도 大企業의 國際競爭力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事實認識에 의하여 中小企業의 技術的 後進性·停滯性에 관한 論議가 退潮하면서 下請研究의 視角·課題·方法의 再檢討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下請組織이 포함된 企業間 組織 全體로서 高生産性과 環境適應力을 발휘하는 要因을 解明하려는 다양한 論點이 제기되었다. 中村(1977)은 問題性을 重視하는 종래의 視角을 否定하고 下請에서 탈피하여 自立을 시도하는 專門加工企業群에 注目하였다. 中村(1981)은 底層의 零細下請企業도 新舊企業의 交替를 통하여 종래의 再下請과 다른 專門加工企業群을 형성하고 있다는 事實을 강조하면서 低賃金利用과 資本節約을 위한 종래의 下請關係가 專門技術에 기반을 둔 對等한 分業關係로 轉化되어 企業間 情報傳達體制로서 유효한 機能을 발휘한다고 주장하였다. 問題性을 부정하는 中村의 見解가 제기가 되어 問題性論과 效率性論이 對立하면서 基本認識에 관한 다양한 論點이 제시되었다.

日本型 下請制가 自動車·家電 등 加工組立型 産業의 輸出競爭力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要因이라는 共通認識이 전제되어 下請制

가 定着하게 된 背景과 效率性을 발휘하는 要因에 관한 論議가 전개되었다. 問題性論의 立場에서도 效率性의 認識이 바로 問題性의 否定으로 連結되는 論調를 비판하면서 問題性과 效率性을 동시에 解明하려는 論議가 전개되었다. 中村(1983)은 下請制를 垂直結合과 市場이 媒介하는 社會的分業의 中間에 위치하여 兩形態의 長點을 취하는 準結合으로 설명하였다. 中村은 下請企業의 統制에 의한 情報把握과 指導連絡이 技術進步와 生産性向上을 실현하고 동시에 負擔轉嫁와 資本節約을 가능하게 하여, 下請制가 問題性을 내포하는 企業結合의 독특한 형태로서 日本의 産業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中村은 準結合이 定着된 要因으로 日本 特有的 集團主義下에 支配從屬關係와 協力關係가 共存함을 지적하였다. 資本·人的 關係가 없는 下請企業의 協力を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日本의 社會的·文化的 要因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今井(1984)은 文化論의 要素를 배제하고 日本經濟의 成果를 日本의 産業組織인 企業間 連結組織(network)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今井은 情報化에 수반하여 技術的 聯關과 企業間 關係의 再編이 진행되어 連結組織型 産業社會가 도래하게 되며 日本의 中小企業이 형성하는 産業組織이 連結組織으로 進化되고 있다고 보았다. 港(1984)은 日本型 生産體制로서 下請制의 編成要因을 技術導入에 의하여 급속히 진행된 工業化過程에서 資本不足을 補完하는 수단으로 在來工業部門의 中小企業이 動員되었던 특수한 條件에서 구하였으며, 下請制의 基本性格을 危險負擔과 經營資源의 配分에 기초한 情報傳達體制로서의 統合으로 보고 긴밀한 情報

交換·階層的 構造의 情報傳達效率性·技術 情報의 擴散으로 下請制의 效率性을 설명하였다. 本章에서는 今井과 港의 論議를 중심으로 企業間組織의 效率性에 관한 論點을 略述하기로 한다.

情報화가 進전되면 産業社會의 效率性을 결정하는 要因으로서 「連結의 經濟性」이 중요해지고 市場이 매개하는 分立型分業이 「連結의 經濟性」을 실현하는 連鎖型 分業으로 이행한다. 「連結의 經濟性」은 複數財의 生産 간에 低費用으로 轉用可能한 共通要素(情報·노하우 등)가 존재하여 複數財를 單一主體가 複合生産할 때 生産費用이 저하하는 「範圍의 經濟性」에 부가하여 共有要素(情報·노하우 등)의 多重利用에 의하여 複數主體간의 結合이 創出하는 相乘效果(企業間 結合에 의한 情報費用·決濟費用·在庫費用의 節減 등)를 포함하는 넓은 概念이다. 「連結의 經濟性」은 市場과 組織의 中間形態인 中間組織과 關聯이 있다. 中間組織은 資源配分過程에서 去來費用을 절약하기 위한 「市場原理와 組織原理의 相互浸透」를 概念化한 것이며 「連結의 經濟性」은 市場과 組織을 結合시키는 連鎖型 組織에서 創出되는 效果의 概念化에 力點을 둔다. 企業間 連結組織(network)에서 創出되는 機能補完的이며 連鎖的인 相乘效果가 「連結의 經濟性」의 核을 이룬다⁹⁾.

市場과 組織간에 子會社·系列企業·下請企業·關聯企業 등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中間組織이 존재하는 것이 日本的 産業組織의 특성이다. 企業間에 市場去來가 계속되면서

去來關係에 組織原理가 浸透되어 企業間 連結組織이 형성된다. 企業간의 連結이 去來가 계속되는 정도이면 軟性 連結組織이 형성되며, 資本·人的 關係가 介在하면 硬性 連結組織이 형성된다. 日本的 企業集團이 硬性 連結組織이며, 企業集團의 內部去來에 市場原理가 浸透하고 構成員이 集團外部로 多重關係를 확장하여 軟性 連結組織으로 轉化되기도 한다. 規模의 經濟性을 保持하면서 環境適應性을 강화하기 위하여 中間組織을 이용하는 것이 日本的 經營의 特性이다¹⁰⁾.

自社の 經營자를 分封시켜 內部化되었던 機能이나 새로운 활동을 子會社로 組織化한다. 大企業은 日常的인 活動을 分封하고 研究開發을 비롯한 知識集約的 活動을 保持한다. 子會社의 설립과 함께 中小企業과 다양한 垂直的 連繫를 발전시켜 過大規模의 硬直性을 회피한다. 下請企業과의 關係는 排他的이 아니다. 革新的 小企業은 集團外部와도 거래한다. 母企業도 集團內外에서 혁신적인 下請企業을 구한다. 內部資源의 效率的 利用을 위한 協力企業의 다양화로 多重關係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企業集團의 仲介 없이도 企業間關係가 형성된다. 革新的 活動이 頂點에서 底邊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獨自的 專門技術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결여된 中小企業은 企業集團의 구성원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된다. 大企業이라도 環境適應에 실패하면 集團內部에서 영향력을 상실한다. 産業全般에서 統制와 革新活動의 非集中化와 分散化가 進전되고 있다.

統合的 集中化에 비하여 軟性 連結組織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下部單位의 革新的 適應과 적절한 方向選擇이 용이하다. 巨大企業集

9) 宮澤健一(1975) 및 K. Imai and H. Itami (1984) 참조.

10) 青木昌彦(1984) 참조.

團의 意思傳達機構는 下部單位에 확산되고 있는 革新的 適應의 활용에 실패하기 쉽다. 軟性 連結組織에서는 下部單位에 대한 감독도 유효하게 이루어진다. 거대한 統合企業의 內部去來에도 市場原理가 도입될 수 있으나 連結組織의 下部單位가 利潤形成原則에 보다 철저하게 되고 실패하면 존속할 수 없다. 勞使關係에서도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다. 企業規模가 클수록 組合指導者는 組合員의 다양한 利害를 調整하기 어렵게 된다. 從業員의 雇傭條件을 均質의으로 유지하여 人的 資源의 관리를 보다 신축성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에는 賃金이나 雇傭條件에서 차이가 있다.

日本産業의 特性인 製品開發의 柔軟성과 迅速성은 連結組織型의 産業組織과 밀접한 關聯이 있다. 微細한 分業·節次의 學習·連結組織을 통한 情報의 集積과 擴散을 특성으로 하는 中小零細企業의 連結組織은 母企業이 의도적으로 편성하였던 下請組織이 業務連携를 통하여 細胞分裂이 일어나면서 自然發生的으로 軟性 連結組織으로 進化한 것이다. 量產型 大工場의 生産性向上과 製品開發은 東京·川崎의 下町에 群居하는 零細企業群의 連結組織에 集積된 技能과 技術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零細企業들이 連携하여 大企業이나 企業研究所가 注文하는 少量의 特殊品이나 試作品의 製作을 소화하는 軟性 連結組織을 형성한다.

零細企業간에는 市場이 媒介하는 分立型 分業이나 大企業 內部的 제약된 分業과 달리 自律性を 지니면서 긴밀히 相互依存하는 分業이 이루어진다. 分業의 增殖過程에서 需要集中에 의한 分業의 細分化로 中小企業의 從

業員이 독립하여 開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零細企業은 技術領域을 壓縮하여 특수한 專門機能을 研磨하고 大企業 內部的 제약된 分業과 달리 적극적으로 試行錯誤를 행하여 기능이 자유롭게 신장된다. 細分化·差別化된 分業이 零細企業간의 連帶를 강화시켜 분화된 기능이 통합되는 軟性 連結組織이 自然發生的으로 형성된다.

零細企業의 連結組織은 試作品 製作에서 節次에 관한 學習效果(learning in arrangement)를 나타낸다. 試作品의 注文이 다양해도 製作에 필요한 技術·技能의 범위가 한정되어 注文에 따라 변하는 節次(作業順序)만 習熟하게 되면 學習效果에 의하여 製作費用이 저하되고 製作時間도 단축되어 製品開發의 迅速성과 伸縮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連結組織을 구성하는 零細企業간에는 業務連携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情報의 共有와 신속한 情報交換이 이루어진다.

母企業과 1次下請企業간의 硬性 連結組織에서는 計劃的으로 情報交換이 이루어진다. 母企業은 下請企業에 技術情報를 이전하고 1次下請企業은 自社の 經驗과 2次下請企業의 情報에 근거하여 部品과 工程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1次下請企業이 連結組織의 情報傳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垂直的 情報交換의 효과가 나타나면 母企業도 1次下請企業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誘因이 생긴다.

連結組織의 去來關係는 長期契約과 달리 安定的 去來를 보증하지 않고 市場條件에 의하여 決濟하는 관계로서 거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當事者간에 信賴關係가 형성된다. 連結組織의 거래는 市場去來와 組織內去來의 중간에 위치하여 短期的 市場交換과 長期的

信賴關係와의 中間的 性格을 지닌다. 下請企業에 대한 技術·資金支援의 反對給付로서 母企業의 權力이 발생하고 下請企業은 母企業에 從屬하는 지위를 감수하게 된다. 그러나 下請企業이 經營資源을 축적하여 母企業이 下請企業의 技術과 情報를 重視하게 되면 互惠的인 관계로 轉化된다.

下請制가 效率的인 生産分業體制로 발전하게 된 것은 産業發展過程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직면했던 經濟環境의 特殊性·階層의 下請構造의 情報傳達效率性·長期去來關係의 經濟效果(企業間組織의 生産性) 등 經濟的要因으로 설명된다. 企業間 關係가 形成·維持되는 것은 下請企業의 經營環境이나 經營資源을 고려하면 母企業과 下請企業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經濟的 合理性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集團歸屬意識등 傳統的인 意識構造가 변화해도 下請制가 여전히 유효하게 기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企業間 組織의 生産性이 經濟的 合理性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下請生産體制의 중요한 構造의 特性은 階層構造이다. 階層構造는 下位階層을 取奪하기 위한 機構로 인식되어 주로 企業規模別 賃金隔差에 의하여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도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나 長期結着型 去來를 통하여 下請分業生産에 의한 「分業의 利益」과 下請企業의 성장에 의한 「成長의 利益」이 실현된 사실도 간과될 수 없다.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하여 장기에 걸친 技術向上과 原價節減을 실현할 수 있고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經營成果를 달성한 日本企業의 環境適應力도 企業間 去來의 유연한 調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엄격한 契約을 지양하여 契約內容이

변경되기 쉽다. 去來當事者는 可變的인 去來契約이 含意하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去來先이 발하는 信號를 정확히 判別하여 거래선의 行동을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상적인 公式·非公式 接觸이 불가결하다. 企業間 組織이 유연하게 운영되려면 不確實性を 경감하는 組織成員間的 密着된 情報交換이 필요하다. 企業間 組織의 階層構造는 去來先의 數를 줄여서 情報處理負荷를 경감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下請組織의 再編成도 情報處理負荷 및 情報傳達效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階層的 企業間組織은 情報傳達費用과 情報把握密度에서 우위성을 발휘한다. 階層的 企業間組織에서는 直接去來하는 下請企業의 數가 감소하므로 빈번한 접촉에 의한 高密度 情報交換이 가능하다. 日本의 階層的 下請組織은 各階層에 集約된 情報端末을 보유하는 階層的 情報傳達體制라 할 수 있다. 數千社 이상의 下請企業과 직접 거래하는 美國의 自動車會社는 빈번한 접촉에 의한 高密度情報의 把握이 불가능하다. 長期的 視角에서 環境變化에 공동으로 對處하는 協力關係의 形成·維持에 불가결한 高密度情報의 交換이 곤란하다.

VI. 結 言

自動車工業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外資企業의 國內生産(Ford와 GM의 knock down生産)을 중단시키고 國產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30년대 후반에 日本의 自動車

部品工業은 低價의 補修用 模造部品을 생산하는 段階에 머물어 組立用 部品の 대부분은 內製되거나 輸入되었다. 自動車部品工業會의 調査資料에 의하면 1950년대 중반에도 自動車部品工業은 여전히 生産設備·技術이 빈약한 小規模 企業으로 구성되어 品質·性能이 國際水準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勞動生産性은 歐美諸國의 1/5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部品價格은 國際價格보다 6~7割이 높았다. 1950년대 중반부터 自動車生産이 급격히 신장되면서 母企業의 要請에 따라서 生産設備·技術을 개선하고 品質向上에 노력하여 1967년에 自動車部品工業會는 品質·技術이 國際水準에 도달했다고 公言하게 되었다¹¹⁾. 그러나 生産性은 당시에 또 여전히 낮아서 自動車工業의 勞動生産性은 美國의 1/2 水準을 下廻했으며 1970년대초에 와서 美國水準에 接近하게 되었다¹²⁾. 自動車の 國產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30여년이 지나서 技術力이 國際水準에 接近하게 된 것이다.

後發國의 工業化過程에서 技術導入과 導入 技術의 消化·改良에 의한 産業技術의 發展이 累積의이고 段階的인 樣態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自動車工業과 같이 規模의 經濟性이 중요한 量產型 機械工業에서는 市場規模가 産業技術의 發展을 制約하는 核心的 要因이 된다. 要素賦存에 적합한 勞動集約的 生産方式을 개발할 수 있는 技術力이 결여된 後發國의 工業化過程에서 量產型 機械工業의 品質과 生産性이 國際水準에 도달하려면, 先進國으로부터 技術이 體화된 專用機械와 自動

化設備를 사용하는 資本集約的 生産方式을 導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市場規模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資本集約的 生産方式은 經濟性이 없다. 1955년에 7萬臺에 지나지 않던 日本의 自動車生産은 1960년에 50萬臺, 1968년에는 400萬臺로 급격히 신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生産技術體系가 全面的으로 改良되어 國際水準의 大量生産體制가 확립되었다. 高度成長에 의한 消費水準의 급속한 向上과 生産費用을 저하시키는 大量生産體制의 구축이 相乘的으로 작용하였다. 이 時期의 下請再編成도 分業集團全體로서 規模의 經濟性을 追求하였다 할 수 있다.

日本企業의 國際戰略이 최근의 登高를 계기로 새로운 局面에 들어서면서 加工組立型 業種의 下請分業體制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登高 이후 海外生産의 성격이 변하여서 母企業이 資材·部品の 現地調達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시아地域에 輸出生産基地를 확보하는 輸出補完型 海外生産에서 貿易摩擦을 회피하기 위하여 北美·유럽地域에 立地하는 輸出代替型 現地生産으로 전환하면서도 國內下請生産의 國際競爭力이 강하여 資材·部品の 現地調達は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登高로 인하여 國內生産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北美·유럽地域의 現地生産이 단순한 貿易摩擦의 회피보다는 生産費用과 販賣價格을 고려하는 企業內 國際分業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資材·部品の 現地調達が 확대되고 있다. 登高 이후의 現地調達擴大는 現地政府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現地에서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地域에서도 現地通貨의 平價切下로 인하여 資材·部品の 對日依存이 높

11) 尾高煌之助(1983) 참조.

12) 衣本肇彦(1987) 참조.

은 業種에서는 國產化가 기업의 死活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現地에 진출한 日本系企業도 競争力を 유지하기 위해서는 生産의 現地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現地 工場의 CKD(complete knock down)生産이 一貫生産으로 확충되고 競争關係의 母企業들이 현지에서 공동으로 下請業體를 活用·育成하고 있다.

海外生産의 擴大 및 生産의 現地화와 더불어 母企業은 資材·部品과 製品의 輸入도 확대하고 있다. 國內外注業體에 發注하던 부품을 海外에서 調達하기도 하고 自社에서 생산하던 製品을 海外에서 OEM 生産하여 逆輸入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中小企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逆輸入을 위한 合作投資先을 구하는 中小企業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 部品輸入은 1979~86년간에 倍增하여 商品輸入의 4%를 점하게 되었고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 수년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中進國의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非價格競争力에서 日本企業과 경쟁하는 분야가 加工組立型 業種의 下請生産에서도 확대되고 있고 경쟁하는 市場도 輸出市場에서 日本의 國內市場으로 확장되고 있다. 日本이 세계의 下請生産基地로서 역할해 온 加工組立型 業種에서도 日本企業이 競争力強化를 위하여 아시아中進國과 工程間 分業을 확대해야 되는 分野가 증대하고 있다.

國內外에서 品質·價格條件이 가장 유리한 資材·部품을 調達하는 것이 母企業의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閉鎖적이었던 下請去來의 開放化가 進行되고 있다. 全業種으로 확산되고 있는 國際的 企業提携도 下請去來의 開放化와 國際化를 가속시키고 있다. 多國籍企業

간의 商品別·市場別 紐帶가 강화되면서 企業提携의 형태도 技術提携나 販賣提携 등 部分的 提携에서 研究開發로부터 下請生産에 이르는 모든 經營活動에서 協力을 강화하는 全面的 提携로 변모하고 있다. 開放化와 더불어 一括發注화와 技術去來化가 가속되고 있다. 工程別·部品別 分散發注가 축소되고 製品別·시스템別 一括發注가 확대되고 있다. 低位技術工程의 賃加工의 下請生産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大量生産體制에서 工程別·部品別 分散發注가 지나는 量產效果가 海外生産의 확대와 生産의 多品種少量化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의 生産同期化, 短納期化, 高品質化 등도 一括發注화를 가속시킨다. 一括發注화는 下請分業生産이 工程·設備分業生産에서 技術分業生産으로 이행하는 技術去來화와도 관련이 크다.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協力業體와 技術의 紐帶가 긴밀해야 된다. 協力業體를 포함한 全社的 VE活動을 추진하며, 開發段階에서부터 協力業體를 참여시켜 VE에 의한 費用節減幅을 극대화한다. 製品壽命의 短縮과 製品의 多樣化에 따른 母企業의 設計·開發能力의 부족도 技術分業化를 가속시킨다. 이와 같이 최근의 登高에 의하여 技術開發력을 지닌 專門業體 중심의 技術分業體制로 이행하고 있다.

日本의 自動車工業이 輸出에서 現地生産으로 전환하고, 製品別·生産工程別로 國際競争력을 지닌 분야에 특화하여 多國間 相互補完關係를 형성하는 등 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自動車部品工業에서도 國際化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自動車部品業體의 對外活動에서는 自動車輸出에 따른 補

修用 部品の 供給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近年에 와서는 自動車業體의 現地生産에 참여하는 부품의 現地生産, 開途國의 自動車 國産化計劃과 관련된 産業協力, 系列關係를 벗어나 해외의 自動車業體에 納品하는 國際 下請 등 독자적인 國際戰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自動車部品工業會에 의하면 1985년 5월 現在 自動車部品業體의 海外現地法人은 生産會社가 152社 販賣會社가 60社에 달하며 技術供與도 273件에 달하고 있다. 1983년 12월의 시점과 비교하면 生産會社가 23社, 販賣會社가 5社, 技術供與가 89件이 증가하였으며 地域別로는 臺灣, 韓國 및 美國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日本의 下請制는 日本의 條件에 의하여 規定되는 定形的 分業體制가 아니다. 下請系列化가 확대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에서부터 部品工業의 國際的 展開가 본격화된 최근 에 이르기까지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分業集團 全體로서 效率性を 강화하는 방향으로 下請組織과 下請關係의 變化가 波狀的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일관된 특성은 經濟的 合理性에 입각하여 競争과 協力の 調和를 추구하는 下請組織의 再編成과 分業集團의 統制·調整이라 할 수 있다.

下請制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分業體制는 個別 生産單位에 分散되어 있는 生産過程을 媒介·統合하는 機能을 요구한다. 市場이 매개하는 分立型 分業과 달리 市場原理와 組織原理의 相互浸透에 의하여 高生産성과 環境適應性を 실현하는 連鎖型 分業에서는 自主性を 지닌 諸生産單位를 統制·調整하는 管理機能이 요구된다. 連鎖型分業의 管理는 制度的 權限에 의하여 貫徹되는 組織內分業

의 管理와 달리 競争을 통한 管理로서 管理의 對象·方法·媒體가 광범위하다. 이러한 管理機能은 外注下請管理로 具體化되며, 下請組織을 編成하여 效率的으로 관리하는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準結合의 형태를 취하는 下請關係의 問題性과 效率性を 一體的으로 파악하고 支配·從屬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게 된다.

下請制는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社會의 生産資源을 諸生産單位간에 再配分하고 기능적으로 統合하는 分業集團의 管理機構로 이해할 수 있다. 産業發展에 수반하여 分業이 심화되면서 分業組織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社會的 機能의 高度化가 요구되어 大企業이 下請企業의 生産過程을 指揮·監督하는 支配的 社會的 基盤이 형성된다. 産業發展段階·市場規模·勞動力의 質的構成·勞使關係·最低賃金制·對外去來環境의 變動에 대응하여 分業組織을 編成·管理하는 具體的 內容이 변하며, 이러한 變化가 分業集團의 構成員간에 수용되는 것은 構成員의 대다수에 이익이 된다는 經濟的 合理性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經濟的 合理性은 分業體制의 高生産성과 環境適應性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高生産성과 環境適應性은 競争原理가 관철되는 分業集團의 編成과 管理·分業組織의 階層的 構造에 의한 情報傳達效率性·信賴關係에 바탕을 둔 유연한 企業間 去來·下部單位의 革新的 適應을 活用하는 連結組織의 特性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参 考 文 献 ◁

- 青木昌彦, 「擬似ツリー構造 つうじる革新的適應」, 『季刊 現代經濟』, 第58號, 1984.
- 伊東岱吉, 『中小企業論』, 日本評論社, 1961.
- 今井賢一, 「ネットワーク 産業組織」, 『季刊 現代經濟』, 第58號, 1984.
- Imai K. and H. Itami, "Interpenetration of Organization and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984.
- 尾高煌之助, 「自動車部品工業の發展と停滯」, 『經濟研究』, 34卷 4號, 1983.
- 加藤誠一・水野武・小林靖雄(編), 『經濟構造と中小企業』, 同友館, 1976.
- 河崎亞州夫, 「今日の下請系列と中小企業」, 日本中小企業學會(編), 『下請・流通系列化と中小企業』, 同友館, 1985.
- 北澤康男, 『中小企業成長論の研究』, 世界思想社, 1975.
- 衣本篁彦(編), 『日本工業構造の變動』, 中央經濟社, 1987.
- 小林義雄(編), 『企業系列の實態, 獨占資本の相互提携と支配強化』, 東洋經濟新報社, 1958.
- 小宮山琢二, 『日本中小工業研究』, 中央公論社, 1941.
- 瀧澤菊太郎・小川英次(編), 『先端技術と中小企業』, 有斐閣, 1988.
- 通商産業省, 『商工政策史・第12卷 中小企業』, 1963.
- 中村秀一郎, 「日本の中小企業問題」, 合同出版社, 1962.
- _____, 『中堅企業論』, 東洋經濟新報社, 1964.
- _____, 『中小企業』, 日本經濟新聞社, 1977.
- _____, 『現代中小企業史』, 日本經濟新聞社, 1981.
- 中村精, 『中小企業と大企業』, 東洋經濟新報社, 1983.
- 港徹雄, 「日本型 生産システムの編成構造」, 『青山國際政經論集』, 第2號, 1985.
- 藤田敬三(編), 『下請制工業』, 有斐閣, 1943.
- _____, 「日本産業における企業系列」, 『經營研究』(29), 1957.
- 宮澤健一, 『産業の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75.
- 渡邊幸男, 「下請・系列中小企業」, 中小企業事業團・中小企業研究所(編), 『日本の中小企業研究』, 有斐閣, 1985.